

KLPGA 임원(이사) 입후보 출마 포부서

KLPGA 대의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9번 이영귀입니다.

우리 협회는 여러 선배님과 후배들 그리고 회장님 이하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그동안 끝없는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어느 측면은 좀 더 높은 수준으로 한 단계 도약하여 회원들에게 더 신뢰를 얻고, 여성으로서의 활동을 증진 시켜 골프 산업의 성장을 이끌기 위한 골프의 보급과 다양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여자프로의 인지도를 높여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협회가 새로운 혁신과 전략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대의원 여러분 저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우승한 경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 KLPGA 회원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협회를 사랑하며 협회의 발전을 바라는 열정 하나로 제가 맡은 일을 소신껏 처리하여왔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위원과 임원을 경험하며 우리가 더 발전하기 위해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을 이 지면을 통해 써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제 적극적으로 자선활동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여성들의 건강에 관련하여 의료지원 프로그램이나 혹은 환경보호 등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갖고 있는 곳에 우리도 관심을 가져줘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임원인턴 제도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회에서 논의되고 결정하는 주제들은 아주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윤리나 도덕적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해야 할 일도 있고 마케팅이나 홍보 또는 스폰서 관련이나 방송중계권 판매 등 기타 크고 작은 업무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후배의 오랜 관계 속에서 친밀감에 의존해 결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이를 맺어 왔습니다.

그래서 임원교육을 통해 업무의 이해도를 높이고 조직의 명확한 목표와 전략적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처럼 오랜 기간 얼굴 보며 친밀감이 좋은 단체는 좋은 사이가 장점이기도 하지만 회원 전체의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단점이 될 수도 있기에 KLPGA에 새내기 임원이나 재선출된 임원 모두에게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대의원 여러분 세계는 더욱 가깝게 연결되어 있고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새로운 도전과 다양한 경험을 가진 임원을 선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협회 운영이 모든 측면에서 청렴성과 윤리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높은 가치를 추구할 때 회원은 물론이고 스폰서나 파트너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들에게 신뢰를 주어 우리 협회에 대해 부정적인 이슈가 줄어들고 우리의 이미지와 평판을 보호할 수 있으므로 우리의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 입니다.

대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2 월 29 일

성 명 : 이 영귀



KLPGA 임원선거관리위원회 귀중